

제31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제31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4월 14일 오전 10시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총 32개 지역선수단(국내 31, 일본1)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안동권문 하나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산청·장년회가 주관하고 안동권씨 대총회가 후원했다. 오전에는 가랑비가 오락가락하였지만 체육대회를 치루는 데는 별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날 식전 행사로 고구려복소비조흔회해림예술단과 가수 엘리스 3인조 전자현악팀의 공연으로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부추겼다.

먼저 전국 31개 지역별 선수단이 권재일, 권해인 두 아나운서의 사회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안동권문 하나로!! 미래로!! 제31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라는 슬로건을 선두로 뒤이어 안동권씨 대총회 깃발, 이어서 서울청장년회 선수단, 안동능곡청장년회 선수단 등 31개 지역별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했다. 내외 귀빈들은 각 지역별 선수들이 입장할 때마다 일제히 일어서서 힘찬 박수와 함께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특히 산청선수단은 ‘2020년에는 산청으로 오이소’라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했으며 청송선수단은 분부석으로 우르르 달려가 청송 사과를 한 봉지씩 선물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답양선수단은 가장 어린 선수들이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대회는 권도영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국민의례와 시조님께 말배, 내빈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부산청장년회 권갑수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체육대회가 족친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속에 서로 소통하고 결속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호 부산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새 세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31회째 대회가 부산에서 열려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대회 주관은 청장년회가 맡되 대회 명칭은 ‘안동권

문 문화제전’처럼 권문 가족 전체의 잔치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총회 권해오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총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권을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

장게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고양시장에게도 지난 4월 9일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이 그 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족친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

로도 국가행사로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국의 족친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은 안동권문의 자랑이자 축복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체육대회를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저의 집사람이 안동권씨라고 소개한 후 부산 오신 김에 돈 좀 쓰고 가시라고 말해 참가자들을 크게 웃게 했다. 안동권문의 며느리인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며느리를 이렇게 잘 해주는 문중은 안동권씨가 최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한국씨씨연합회 권길상 총재는 격려사에서 “전국의 족친들간에 돈독한 인정을 나누며 종친회가 더욱 번창하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청년회 권을환씨 등 남아 선수대표 2명은 참가 선수를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다. 부산부녀회원 30여명은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권문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오후에는 초대가수 J(제이), 김해경 등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맞춰 수많은 족친들이 구름처럼 모여 끼를 발휘하며 여흥을 즐겼다. 이어서 권문바로알기 OX 퀴즈, 대박 터뜨리기, 5인6각 경기, 바람 잡는 특공대 등의 경기를 진행했다. 2020년 내년에는 산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체육대회를 모두 마쳤다.



사회를 맡은 권재일, 권해인 아나운서



권해오 회장과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권건중 사무총장 등 각 지역별 참가선수단을 일일이 방문하며 격려했다.

청주선수단과 함께

봉화선수단과 함께 화이팅!

입장 퍼레이드



이쁜 치어걸들이 ‘안동권문 하나로!! 미래로!!’ 슬로건을 들고서 입장



안동권씨 대총회 깃발 입장



체육대회의 산실 능곡회 노란우산을 들고 멋지게 입장



대구선수단 입장



청송선수단 청송 사과 선물 받으시요!



2020년에는 산청으로 오이소~



영주선수단 내래 북한에서 왔수다 누군지 이시겠소



참가선수단 중 가장 어린 선수들 입장(담양)



일본선수단 대표로 참가한 권승일 부회장과 부인, 권부회장은 매년 참가하고 있다.



입장하는 선수단을 환영하고 있는 권해오 대총회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인탑 파총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 네번째부터).



광주선수단 권총화 회장과 회원들, 흥이가 칭하게 맛있는데요!

권해오 회장 수고하고 있는 권덕림 총무를 찾아가 격려

의성선수단과 함께



영천선수단(회장 권경환,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함께



대회 개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선수단과 함께



안동능곡선수단에서 자칭 싸이러는 어린 가수 출전, 엄마 아빠들이 노란우산을 들고 응원

축사 및 선수대표 선서



권해오 대총회 회장, 안동권문 체육대회는 자랑이자 축복이라고 축사를 하고 있다.



2500여명의 선수단 참가



선수대표 선서



부산부녀회원 안동권문의 노래 합창



2018년도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서울청장년회 권기성 기획실장(왼쪽에서 두 번째), 권순호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권순웅 사무국장(맨 오른쪽) 등 임원진에게 대회장 권갑수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공로패 수여.

게임 및 여흥



아싸! 난리가 났다. 무대 위에서



무대 밑에서



초대가수 J의 신나는 무대



바람 잡는 특공대 능곡선수단



바람 날아갈라, 끝까지 버티기 작전



바람은 우리가 좀 잡지요, 바람 바람 바람